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공동체 창립 39주년 주일입니다. 감사와 섬김을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과 공동생활 정회원 서약순서가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서약하는 사람은 이용신 진정행 부부입니다.
- 지킴이로 섬겨주신 그루터기사랑방에 감사합니다.
-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3일(수)
사랑방공동체학교를 방문합니다.
- 윤화자 집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예배 후에 공동체운영위원회 36차 임시회의 모임입니다.
- 다음 주일공동예배는 어린이사랑방에서 준비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다 함 께

강단을 꽃으로 : 정연갑 · 이운순 집사 가정 (결혼기념 감사)
석지원 청년 (생일 감사)
이나영 · 이홍인 학생 (할아버지 생신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18 호

2023년 4월 3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며칠 전 잠시 다녀온 사랑방 뜰을 밟으며 새순들과 초록으로 물든 나무와 정원을 보았고, 그보다 더 화사한 사랑방 가족들의 얼굴들에서 봄꽃의 생명의 역동성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동행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랑방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는 축하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한 시간을 꿈쩍하지 않고 이겨낸 여러분의 한결같은 마음과 인내에 적지 않은 놀라움과 경이를 표합니다.

39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기려볼 만한 공동체가 예레미야 35장에 있어 살펴보려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후손들은 뿌리 깊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요나답 공동체는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돌이켜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좋은 모델입니다. 이 족속은 많은 세대를 거쳐 오면서도 금주와 유목민의 삶 등에 관련한 공동체만의 서너 가지 규례를 그대로 순종하며 공동체의 삶을 한결같이 영위해 왔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다' (렘35:16)하신 말씀을 통해 그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과 마음을 쉬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는 용비어천가의 한 구절을 절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같았던 요나답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도 합당하여 꽃 좋고 열매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뿌리는 역사입니다. 뿌리는 내공입니다. 뿌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뿌리의 위력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됩니다. 밭에 나가 풀을 뽑다 보면 자칫 잡초인 줄 알고 작물을 다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때 뿌리를 살핍니다. 뿌리만 다치지 않았으면 다시 든든히 복토를 해 주고 안심합니다. 가지, 잎이 다소 다쳤어도 뿌리만 든든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곧 생명인 까닭입니다.

최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해외 공동체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는 어느 곳이냐는 질문에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A 공동체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기에 "A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만의 고유한 하늘나라의 비전을 모든 멤버들에게서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마치 공동체의 비전을 매우 신성하게 공유한 DNA를 만나는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저는 약간의 아련한 그리움과 떨림의 마음을 담아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사랑방공동체를 말할 때나 생각할 때면 그러한 그리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는 공동체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갖고 세세한 생활 원칙과 뚜렷한 약속의 규범들을 지난 세월 동안 간명한 삶을 통해 새겨가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아온 역사가 뿌리에 응축되어 있고, '땅에 있는 하늘나라'를 각각의 DNA의 삶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불혹은 전율은 있으되 웬만한 흔들림에 미혹되지 않는 매력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그 4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생명 탐놓아가는 하늘 씨앗이 되어 더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39주년을 맞이하여, 뿌리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해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의 약효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공동체 교회론)'을 한번 찬찬히 복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동행, 동역해 오신 여러분들께, 또 정회원에 입회하시는 분들에게도 축하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새터마을교회 권혁신 목사

한주간 말씀

“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89장 349장 / 302장
기도 : 전선희 집사
성경 : 사도행전 9장
제목 : 올바른 깨달음

1. 내용: 초대교회의 깨달음. (What)

<문단구분>

- 1~19a 사울의 깨달음
- 19b~31 깨달음의 외적 변화
- 32~43 깨달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복

2. 의미: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 (Why)

- 1) 사울은 깨달게 되었다.. (v.18~19)
- 2) 사울은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다.(v.20~29)
- 3)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 주신다. (v.34, 40)

3. 적용: 올바른 깨달음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How)

- 1)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자.
- 2) 박해와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깨달은 것은 전할수밖에 없다.
- 3) 믿음은 실제적인 변화가 따라온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

제비뽑기

지난주 늘푸른사랑방의 같은 식구인 어느 집사님의 주보 글을 읽었습니다.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라는 고백의 글을 읽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저는 제비뽑기라는 쑥스럽고 어색한 절차로 방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일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갈 수 없게 제비뽑기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비뽑기 관련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잠:33)'라는 성경 말씀에 저는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서일기 과정에서 사도행전 1장에 가롯 유다 대신 사도를 뽑는 과정이 제비뽑기였다는 사실에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여호와와 선물'이란 의미를 가진 맛디아 사도로 선출).

그래도 은혜로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되도록이면 제비뽑기 대신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함을 채우면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싹사랑방 윤호중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6 : 18-19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32 : 5 인도자
210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 감사할 수 없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

고린도전서 1 : 4-9 설교자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방 사랑방
" 감사할 수 없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 정태일 목사
< 정회원 서약식 > < 성찬식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208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주님의 사랑이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기환 차현주/ 봉헌위원 : 김중필/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환난중에 감사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5-8>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9>

공동체적인 삶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 교회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인 '친교(코이노니아)' 즉 교회의 공동체성과 공동체적인 삶을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십시오. 사랑방공동체 39년의 역사 가운데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랑방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교회, 그 감사를 섬김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향옥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은, 꾸러기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보는 날, 등교할 때 베개를 들고 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집으로 가는 날인, '베개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꾸러기들이 별 탈 없이 하룻밤을 잘 지낼 수 있을지 혹시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울지는 않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꾸러기들을 응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과연 꾸러기들이 잘 지냈을까요? 예! 기특하게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잤습니다. 화요일 낮에는 에어바운스와 그네를 타며 신나게 놀고 맛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에는 노래방으로 변신한 학교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또 신나게 놀았습니다.

잠은 멧쟁이 여학생 생활관에서 다함께 잤습니다.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다행히 엄마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는 없었네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혹시 불편한가 싶어 들여다보고 자꾸 걸어차는 이불 덮어주느라 선생님들은 거의 밤을 꼴딱 새웠지만 꾸러기들은 모두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아침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또 놀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두가 '베개의 날' 또 다시 하고 싶다고 하니 대성공입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25일(화) 창동 성교육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스타렉스 3대에 나눠

타고 도란도란 얘기도하고 노래도 부르며

저학년은 성폭력 예방과 아이의 탄생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고학년은 사춘기와 성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춘기 몸의 변화, 샤워하는 순서, 면도기 사용법, 생리대 사용법,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 게임과 설명으로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교육 후 차량별로 음악도서관과 기적의도서관에서 재미난 책도 읽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맛난 간식을 먹고 하교했습니다.

5월4일 목요일엔 멋부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얼 입고 울지 상상만해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 교사 : 이현숙 >

멧쟁이학교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철원 dmz 평화공원부터 경기도 포천 사랑방공동체까지, 약 120km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짐을 메고, 나의 다리로 걸어 하나님ی 창조하신 세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모두에게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한 걸음에, 한 바람에, 한 햇살에, 한 산자락에 하나님께 감사를 남기는 우리의 고백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벌어져있던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아물었습니다. 이번 도보여행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 교사 : 장성아 >

사랑방공동체 39번째 생일을 맞으며

오늘은 사랑방공동체 39번째 생일이다.

지금까지 사랑방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나의 교회 나이도 39살이다.

창립일로부터 지금까지 내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지금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32살 푸른 나이에 시작해서 39살을 더하니, 초로의 나이가 되어 밖에 나가면 어르신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었다.

39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칭찬 받을 일은 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을까?

권사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을까?

지나온 39년.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플 때도 있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 많은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이제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사랑방의 꿈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사람들과의 신뢰가 무너졌던 일들을 회복하고, 모난돌들이 서로 부딪치며 깎여서 둥근돌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미숙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찬 송 : 208장, 430장

성 경 : 역대지하 16장

말 씬 : 처음 믿음을 기억합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수단을 위해>

군벌간의 무력충돌로 수백명이 죽었고, 각 나라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애쓰고 있음. 수단 땅의 평화와 그 나라의 무력충돌이 강대국들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새터마을교회>

1) 새터마을 교회가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

2) 물질로, 기도로 돕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위해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이번주 사랑방공동체 창립주일을 위해

2) 멋쟁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해

3) 공동체내에 아픈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늦은 꽃샘 추위 속에서도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공동식구들의 매일의 삶도 생명의 힘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공동체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며 생활공동체는 정회원으로 서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공동체에서 헌신하시고 이제 더 많이, 더 깊이 섬기고자 정회원이 되시는 이용신장로님, 진정행 권사님. 두분의 서원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뻐합니다.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생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변 환경에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주변도 우리의 신앙도 더욱 살피는 봄날 되시길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